**수업 외에 스스로 개발 관련 공부를 해본 경험 (500자 내외)**

: 이번 방학에 자바, 웹 개발 공부를 진행

먼저 저는 2021년 2학기 이화여대 중앙 컴퓨터 동아리 ECC에서 딥러닝과 C언어 스터디를 했습니다. AI분야 특성상 어려운 수학,통계 공식들을 많이 사용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원들과 토의하고 공식을 도출해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구력을 길렀습니다. C언어의 경우에도 초심자인 저에게는 어려웠지만 스스로 에러를 구글링하고 고쳐나갔고 C프실 및 컴프실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겨울 방학동안 JAVA와 웹 개발공부를 진행하며 HTML 그리고 CSS 일부분을 공부했습니다. JAVA의 경우 운영체제에 독립적인 언어이고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점에서 선택했고 HTML/CSS도 웹 개발의 기본기이지만 객체지향개념이나 방대한 양의 태그 등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유튜브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등 개념을 이해하고 노력한 끝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방학 그리고 학기 중에도 저의 개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1. 지원동기(300자 내외**) : EFUB은 제 정체성의 교집합입니다. 첫 번째로 제 꿈은 웹 개발자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컴퓨팅 교양을 들은 뒤로 개발에 흥미가 생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개발에 흥미가 생겼던 이유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렸을 때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 cs 분야들 중 시각적으로 웹 화면을 구성하는 프론트 엔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이라는 가치입니다. 이펍은 타 동아리와 달리 인턴 개발자로 세미나를 듣다가 후에 리드 개발자로서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세미나를 듣거나 개인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부원들끼리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리드 개발자가 됨으로서 혹은 되기 위하여 더 공부하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펍에 지원했습니다.

// submit 첫 번째로 제 꿈은 웹 개발자입니다. 저는 컴퓨팅 교양에서 컴퓨터에 명령을 내렸을 때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져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cs 분야들 중 시각적으로 웹 화면을 구성하는 프론트 엔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입니다. 이펍은 인턴 개발자에서 리드 개발자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타 동아리에서 세미나를 듣거나 개인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부원들끼리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리드 개발자가 되기 위하여 더 공부하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펍에 지원했습니다.

**2. 프로젝트 및 협업 경험 (500자)**

저는 인문대 교지 동아리 녹원에서의 경험을 이펍에서 발휘해 협동할 줄 아는 부원으로 기능하고 싶습니다. 첫째, 녹원에서는 마이클 센델 교수의 책 두 권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주 활동이었습니다. 토론을 준비 및 진행하면서 다양한 글들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문해력을 새로운 텍스트나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휘할 것입니다. 둘째, 저는 토론을 할 때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펍에서도 개발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부원들과 안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견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지를 발행했습니다.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내고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 웹툰은 예고편이 없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OTT 플랫폼처럼 장르/별점/회차수/작가 등을 선택하면 웹툰을 추천해주고 스포o/x를 선택해 후기도 쓸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Efub 사이트를 동아리 부원끼리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기능을 추가해보고 싶습니다. 로그인한 부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코드를 업로드하고 그것에 대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댓글이나 메모 등)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웹 한인타운입니다. 해외 경험/대학원/취업 등에 관한 정보는 흩어져 있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 잡마켓, 언어 공부, 한인 분포 지도 등에 관한 메뉴를 만들어 소통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SAGE EWHA와 협업하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멋사>

**다양한 IT동아리 중에서 멋쟁이사자처럼 대학 10기를 선택하고 지원하시게 된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가장 큰 이유는 멋사가 비전공자 친화적인 동아리이기 때문입니다. 비전공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개발 동아리는 드뭅니다. 사실 비전공자로서 개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교내 컴퓨터공학과 관련 행사는 대부분 주/복수전공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동아리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또 많이 흩어져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봤고, 또 개발 스터디도 해보았으나 확실히 지속성이 떨어졌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 ‘학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서비스를 구현하는 개발 실력을 드라마틱하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멋사에 대해 알아볼수록 제가 추구하는 가치인 성장과 협업과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반 4주 특정 언어를 교양처럼 수강하고

단순히 선배와의 q&a 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

현재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개발 분야 전반에 관심이 있고 따라서 기획이나 ux/ui에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를 멋쟁이 사자에서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고 싶어서 지원했다. 개발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많이 경험해보고 싶음

각 트랙별로 심화교육

트랙장 제도 도입, 강의를 해줌 : 단순히 강의를 보고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님. 물론 개발 공부는 스스로 할 때 가장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할거긴 하지만 멋사의 소통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자체가 부원들끼리 소통과 교류를 많이 하는 동아리라고 느꼈습니다.

기획, 프론트 엔드, 백엔드, 디자인까지 개발에서 가장 중추적인 파트들이 모두 모여있는 동아리 또한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프론트 엔드

**위의 파트를 선택한 이유와 관련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파트를 통해 어떠한 성장을 희망하시는지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저는 이번 겨울 방학동안 JAVA와 웹 개발공부를 진행하며 HTML 그리고 CSS 일부분을 공부했습니다. JAVA의 경우 운영체제에 독립적인 언어이고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점에서 선택했고 HTML/CSS도 웹 개발의 기본기이지만 객체지향개념이나 방대한 양의 태그 등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유튜브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등 개념을 이해하고 노력한 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초만 익힌 상태여서 멋사에서 웹 개발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협업하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처음 개발과 it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코딩 실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협업을 해야 하고 또 협업을 하면서 개발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업하는 것에 갈증을 느꼈습니다. 아이디어톤, 해커톤, 신촌톤 등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프론트 엔드’ 라는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발자로서는 협업할 줄 알아야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최종 목표는 ‘약자를 도와주는 개발자’ 입니다. 특히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 채널과 저희 부모님, 조부모님을 보면서 중장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앱이 아닌 웹 개발

더 나아가가3. 내가 멋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동아리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한 점: 멋사가 나에게 주는 점을 앞선 질문에서 언급했었는데 저는 그러한 멋사가 저에게 하는 투자를 아웃풋으로 냄과 동시에 성장하고 싶다. 비전공자도 it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후배에게 희망을 주는 / 앞으로 후배들을 이끌어 주는

**멋쟁이사자처럼 대학은 협업과 팀워크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원자 본인이 협업과 팀워크를 진행해보았던 경험과, 그 경험을 멋쟁이 사자처럼 대학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 저는 인문대 교지 동아리 녹원에서의 경험을 멋사에서 발휘해 협동할 줄 아는 부원으로 기능하고 싶습니다. 첫째, 녹원에서는 마이클 센델 교수의 책 두 권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주 활동이었습니다. 토론을 준비 및 진행하면서 다양한 글들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문해력을 새로운 텍스트나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휘할 것입니다. 둘째, 저는 토론을 할 때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멋사에서도 개발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부원들과 안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견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지를 발행했습니다.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내고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습니다.

**멋쟁이사자처럼 대학은 최소 주 2회 모임 & 10시간 이상의 시간 투자를 권장합니다. 활동 기간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매주 얼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는지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 2021년 2학기에는 학점 관리는 물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비롯하여 동아리 3개, 교내활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 공부에 몰입하고자 다짐했고 개발과 저의 진로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아르바이트와 기존의 동아리들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멋쟁이사자에서 제시하는 최소 활동 시간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스터디를 더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ㄴ

그리고 멋사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리큘럼은 아니라고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 공부하여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만들고 싶은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주세요. (500자 이내) \***

먼저 멋쟁이사자 통합 웹사이트 만들고 싶습니다.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지사항, 신입부원 지원 폼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그인한 부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코드를 업로드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툰 큐레이팅 서비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추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예고편도 있지만 웹툰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OTT처럼 장르, 별점, 회차수, 작가 등을 선택하면 웹툰을 추천해주고 스포일러 여부를 선택해 후기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웹 한인타운입니다. 해외 경험/대학원/취업 등에 관한 정보는 흩어져 있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 잡마켓, 언어 공부, 한인 분포 지도 등에 관한 메뉴를 만들어 소통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SAGE EWHA와 협업하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실현한다는 가치

파이썬 심화까지 공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방향 : 기획 및 디자인 트랙 신설

다양한 시도를 하고 발전해나가는 동아리에 저도 소속되어 성장하고 싶습니다.

초반 4주 html css python 교양처럼 수강 – domain 단위로 직무 특강 소개

단순히 선배와의 q&a 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

현재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개발 분야 전반에 관심이 있고 따라서 기획이나 ux/ui에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를 멋쟁이 사자에서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고 싶어서 지원했다. 개발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많이 경험해보고 싶음

각 트랙별로 심화교육

트랙장 제도 도입, 강의를 해줌 : 단순히 강의를 보고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님. 물론 개발 공부는 스스로 할 때 가장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할거긴 하지만 멋사의 소통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자체가 부원들끼리 소통과 교류를 많이 하는 동아리라고 느꼈습니다.

비전공자를 위한 개발 동아리 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우는 개발 동아리는 잘 없다.

사실 비전공자로서 개발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교내 컴퓨터공학과 관련 행사는 대부분 주/복수전공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동아리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또 많이 흩어져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봤고, 또 개발 스터디도 해보았으나 확실히 지속성이 떨어졌습니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 ‘학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서비스를 구현하는 개발 실력을 드라마틱하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원자 역량 :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융합 결과를 잘 이끌어 내는가? 비전공자로 어필 =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멋사를 어떻게 알게 어떤 동아리로 느껴졌는지 비전공자 친화적인 동아리 /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하겠다 기여하겠다 / 핵심 가치와 멋사를 연결 어떻게 행동을 할 지 / 멋사를 어떻게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성장할수 있는지 대표들까지 –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고 제안해보겠습니다.

c언어, python, java, html, css 와 같은 프레임 워크들의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나 태그들은 숙지하고 있지만 이를 응용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개발을 아예 처음 접하지는 않지만 거의 초심자에 가까운 수준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개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협업 역량!!! : 프론트 엔드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존 문제해결 능력

갈증을 느꼈던 만큼 협업 경험을 멋사에서 맘껏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획, 프론트 엔드, 백엔드, 디자인까지 개발에서 가장 중추적인 파트들이 모두 모여있는 동아리 또한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프론트 엔드

강의만 수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후 스터디를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 선택예를 들어 토이 프로젝트를 깃헙에 업로드한다던지.. 한 트랙 외에도 다른 트랙을 들을 수 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강률을 높여서 다른 트랙들도 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싶을 만큼 저는 현재 개발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멋사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discovery 하는 것이 멋사에서 또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알기 때문에 지금 저의 상태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멋사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리큘럼은 아니라고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 공부하여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 장점